

[이사람]

“종이를 한 장 꺼내놓더니 꺼먼지, 흰지 물어. 희다고 하니 주먹이 날라 오더라”



©영화사 느티

1943년생, 동원탄좌 덕대(하청) **1030** 항(갱도) 선산부(채탄, 굴진에서 선두에서 일하는 숙련 기술자), 경북 봉화 출신, 화전민 아버지를 둔 김해용은 국민학교 졸업 후 곧장 광업소로 가서 채굴한 원광석에서 아연을 골라내는 일을 했다. 광업소를 떠돌다 화절령 너머 덕대 **1030** 항으로 갔다. 악착같이 일했던 김해용은 “**1030** 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광부”였다. 여섯 식구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만이 삶이던 그가 노동권에 눈을 뜬 건 직영 광부가 건넌 노동교본 때문이었다. 근로기준법을 읽고서 그는 하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직영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현실에 분노했다. 하청노조 대의원이 되고, 사측 편에 선 어용노조에 반기를 드는 동원탄좌 광부들과 함께 광산노조 상경 투쟁에 나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1980**년 **4**월 사북항쟁 직후 김해용은 불법 집회 모의 혐의로 정선경찰서 임시 조사실로 끌려갔다.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이원갑 씨를 비롯해서 광부들이 다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날 오후 5시 넘었나. 딸내미 서이가 집 앞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는 “야 너희 아버지가 김해용이냐” 물으니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 맞아요” 하고. “니 아버지 어딴냐”고 하니 애들이 방에 있다고 했지. 그러고 나서 뭔가 이상했는지, 애들이 먼저

집으로 들어와서는 "아빠, 아빠 이상해" 이러더라고. 누가 아빠 이름을 자꾸 물어본다는 거야. 그때 문이 확 열리더니만 "이놈 나와!" 하는 거야. 세명이야. 사복은 아니고 경찰복같이 생긴 유니폼 입은 사람들. 옷 좀 갈아입고 간다고 하고 다시 나오니까 내 손을 등 뒤로 붙잡더니 허리끈으로 매버려. 그러고는 길로 나가서 택시를 잡아. 내 기억에 택시가 확실해. 뒷자리에 태우더니 나를 중간에 두고 그 남자들이 양옆에 앉아. 그러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씩 툭툭 때려. 운전하는 사람은 경찰 아니었어. 근데 경찰들이 나를 때려도 그 기사는 앞에서 암말도 안 해.

그렇게 고한지서로 갔지 싶어요. 갈 때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 고한지서 가더니 짚차보다 더 큰 차에 다시 태워. 나 말고도 세 사람이 더 있었어. 그때부터 "이 새끼 왜 잡혀가는지 알아?"라고 묻는 거야. 모른다 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왜 모르냐면서 계속 머리를 쥐어박는 거래요. 아까 택시에서보다 더 심하게 때려요. 양쪽에서 막 사정없이 때려요. (웃음) 아까 택시에 탔을 적에 그냥 툭툭 건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사정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 그냥 실고 가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고 왜 안 무서워요. 둘이서 양쪽에서 때리는데 무섭지. 그렇게 해가 다 넘어갈 때가 되어서야 도착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 정선경찰서더라고. 정선서에 딱 들어가니까 바닥에 모포를 하나 짝 펴 놓은 거야. 거기 옆드리라고 하더라고. 여기는 군복 입은 군인들이야. 넙죽 옆드렸더니 모포를 두루룩 말더라고. 그러더니 호스 요만한 거 가지고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웃음) 호스가 새까만데 수돗가에 물 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굵어. 개스 연결하는 줄처럼. 광산에 물 대고 연결하는 그런 호스인데 딱딱해. 모포에 나를 말아놓고 온몸을 치는데, 좌우간 머리만 안 때렸어. 머리는 모포 밖으로 내놨으니까.

“종이를 두고서 꺼먼지, 흰지 물어. 희다고 하니 주먹을 날려”

같이 끌려간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보지도 못했어. 그렇게 때리고 나서는 다른 칸으로 가니 책상이 있고 거기 앉으라고 해요. 책상에 앉으라 하고서는 종이를 한 장 꺼내 놓는 거야. 그러더니 "이 종이가 꺼멀냐 희냐" 묻더라고. 종이야 희죠 이러니까 "이 자식 이게 왜 희냐"고 하면서 주먹이 얼굴로 들어오는 거라, 양쪽에서. 거짓말로 쓰라는 뜻이었겠지. 하이튼 그렇게 맞고서 진술서를 쓰는데 눈물하고 콧물이 막 나와서 쓰지도 못했어요. 맨 밑에 내 이름만 적었지. 이름은 적은 것 같애. 뭘 쓰라고 하냐면 이원갑이 하고 너거들, 대의원들 뭘 얘기를 했느냐, 뭘 조직했느냐 이거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맞은 게 하청이다 보니 동원탄좌 직영 대의원들하고 접촉할 일이 드물잖아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근데 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적에는 참말로 직영 대의원들만 모이지 나까지 부르지는 않거든요. 나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걸 자꾸 물으니까 내가 알 수 있네요. 모르죠 뭐. 나는 모른다 하니까 더 두들겨 맞은 거지. 왜 모르냐 이거야. 니가 같은 행동을 했으면서 왜 모르냐 이거지.

그 조사하는 사람은 내 옆에 바로 앉아 있었어. 옆에 앉아서 원하는 대로 안 말하면 때리는 거야. 주먹으로 사방을. 그리고 방 같은 데서 물을 맥인 거야. 물로 고문할 적에 다리 밑에다가 각목을 끼워가지고 한쪽은 책상에 걸고 한쪽은 잡아가 요래 달아놓는 거야. 머리를 여 딱 쥐고는 물을 한 주전자 계속 들이붓는 거야. 완전히 매달아 놓고 머리채를 쥐고 뒤로 젖히니까 몸이 완전히 뒤집히죠. 한 사람은 머리채를 쥐고 한 사람은 주전자로 물 붓고 그래 두 사람이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푸푸 하면서 계속 물만 먹지. 입하고 코로 물을 부으니까 배가 확 부르고 그렇게 몇 번을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정신을 잃었어요. 조금 있다가 깨어나긴 했는데 뭐 어떻게 된 건가 모르겠어. 깨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옆에 그대로 있어. 그러고서도 다시 고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각목으로 매 아까처럼 각목에다 매달아 놓고 여기(허벅지와 종아리를 잇는 관절 부위)를 때리는 거래요. 여기를 때리면 똑똑 소리가 나요, 똑똑. 그럼 발목까지 새까매져요.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이 자식 관절염 걸려 죽는다. 이 새끼 뒤져야 돼” 이러더라고. 죽을 수 있다는 얘기 들으니 아주 이를 갈았지. 어쨌든 살아야 되는 거 아냐. 그 사람들이 막 때리는데 내 뼈다구가 안 부러질 수 있나. 그래도 내가 결심을 대단하게 했지. 그렇게라도 견뎌야지 어떡합니까. 이를 꼭 물고 막 죽일라면 죽여라 이랬죠. 근데 그 말은 차마 못 했어. 매일 두들겨 맞으니 가족이 고 뭐고 아무 생각 없어요. 그저, 어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맨 마지막에는 내가 배운 게 없으니까 잘 쓰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쓰고, 나는 이름만 쓰고 도장만 찍어가는 거야. 그러고는 한 놈이 와서 주먹으로 세계 때리고 나서는 “이 쥐새끼만 한 새끼가 쥐구멍 찾아 잘 찾아 들어간다”고 해. 그때 아 이제 영창은 안 가는구나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 집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 한 20일 살고 나왔나. 며칠 있었는가도 몰라요. 하이튼 하루도 안 맞은 날이 없으니까요. 아이고 참 (눈물) 집에 오니까, 식구가 똥물을 큰 대접에다 하나 해놨더라구요. 뭐 형겅으로 이래 덮어가지고. 원강 아프고 죽을 지경이니까 마셨죠. 마시는데 냄새가 나는지도 몰랐어요. 벌컥벌컥 마셨어. 처음에 짹짹하더라고. 아무 생각 없이 한 대접 마셨는데 다 마시고 나니까 온몸이 퍼렇게, 뭐라 그러나 두드러기, 그게 싹 덮어버리더라구요. 그게 똥독인데 많이 먹으면 죽는 거라. 그걸 몰랐어. 그거 마시고 좀 풀렸나 싶으면서도 온몸으로 두드러기가 나니까 나중에는 안 먹었지. 아 괴롭지. 괴로운 게 나만 괴롭힌 게 아니래요. 나온 이후에도 우리 아버지가 영월 상동에 살았는데 내만 거 왔다 가면 순경이 찾아오고 이장도 와가지고 뭐 묻고 계속 그렇게 찾아오드래요. 우리 딸래미도 학교 가면 저 엄마가 데리러 다니고 그랬어요. (눈물)

“내가 하도 모른다고 하니까, 이름이 같은 다른 김해용을 잡아 왔어”

내가 물고문을 받을 때 옆에 소리도 들리지. 죽는다고 막 고향 막 지르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뭐 아야 아야 하고. 어떤지는 못 봐. 아이고 내 정신

차리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나도 소리를 지르는 판인데 다른 소리가 잘 들리니까. 들리지 않죠. 나도 소리 지르는 판인데. 그러니 어쩌다가 한 번씩 다른 소리가 들려와도 거기 신경 쓸 수가 없지. 내가 우선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덜 맞아야 되는데. 아니 거짓말이라도 막 하면서 못 본 것도 봤다 그러고 뭐 자기네들이 부르는 대로 맞다고 맞다고 이러면 덜 맞겠죠. 그렇지만 나는 아는 게 전혀 없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할 게 없지. 만약에 거짓말해놓으면 계속 이원갑이 어쨌냐 그럴 건데 그게 뭔 꼬라집니까, 그게.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걸 거짓말할 수도 없는 거고. 안 그래요? 아니 할 게 없잖아. 할 말이 없지. 본 것도 없지 들은 것도 없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만 자꾸 캐묻지. 내가 모르는데 자기네들 묻는 말에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더 맞았죠. 나중에 들었는데 내가 하도 모른다고 하니깐 다른 김해용이를 잡아 왔다 하더라고. 나는 영월 김해용인데 강릉 김해용이라고 있어요. 내한테서 고문해서도 뭘 못 들으니깐 강릉 김해용이 잡아다가 고문했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도 많이 당했다고 그러대.

고문한 얼굴 기억하냐고?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무조건 두드려 패는 데. 오늘 누가 물고문하면 다음 날은 딴 사람이 오고 그래요. 사람을 막 갖다붙여. 그래도 기억나는 건 하나 있어. 사복 어데 그 지서 형사 같은데 그 놈이 딱 들어온 거야. 내가 한창 물고문 받고 있는데 어떻게 물고문을 멈추더라고? 그러고 한 놈이 더 들어오더니만 “이 새끼 꿩어 앓아” 이러더라고. 내가 꿩어앓으니깐 허벅지에 나무판을 올려놓고는 워커발로 밟다(한껏) 밟는 거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 자식아 ○○○ 이한테 다 들었다. 이놈의 새끼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밟는 거야. 발로 나무판을 막 문대부는데 어떻게든 안 밟히라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훌딱 다까지죠. 지금도 약간 흔적이 남아 있어. 그때는 두려움이고 뭐고 적게 맞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

한 20 일 지나고 나서, 나 말고도 한 10 명은 같이 나왔지 싶어요. 내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죽 있었거든. 걸어 나가는데 멀리서 “이 자식들 주둥이 조심하라”는 그 소리는 한 번 들은 것 같아. 그때는 그런 말이 두렵고 뭐고 간에, 일단 나가니까 좋지. (웃음) 나랑 같이 나온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데 뭘 얘기를 하겠어. 다들 자기 가족들이 와 있으니깐 거기서 뿔뿔이 헤어졌지. 집 식구가 나와 있었는데 나 보려고 정선서에 여러 번 왔는데 면회는 못 했대요. 집에 가니까 이웃 아주머니하고 다 난리지. 다 몰려와가지고 가서 고생하고 왔다고 이러는 거야. 내가 안에서 어째 당했는지는 모를 거야. 면회도 안 시켜줬으니 당한 걸 어떻게 알아. 그냥 조사를 받았다는 정도만 알겠지. 나도 얘기 안 했어. 그거 얘기했다가 나중에 또 당하게? (웃음) 뭐 들어가서 어떻게 맞았네 이런 건 동료들한테도 말 안 했고. 두렵잖아. 또 잡혀가면 어떡해. 한 번 더 잡혀가면 영창 간다 이런 생각 했지.

다시 광산으로 갔어. 내가 그거 안 하면 먹고살 길이 없잖아요.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취급할지 그런 건 전혀 몰랐고. 뭐 우리 항에 일하는 1300 명 중에 한 10 명이라도 같이 끌려갔으면 모르는데, 나 혼자 갔다 왔으니까 더 두렵지. 해고 시킬까봐, 일하러 오지 말라고 할까 봐. 광산으로 가니까 다들 물어보는데 그냥 뭐 잘 갔다 왔다 이래 얘기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는 두들겨 맞았다고 말했는데 처음에는 얘기도 못했어요. 누구한테도. 근데 나중에 남들한테 두들겨 맞았다고 얘기해도 뭐 큰 큰 반응이 없어. 남의 일인데 뭐 반응을 보이고 그래요. 자세히 모르니까 그랬겠지. 내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괜히 자세히 얘기했다가는 술 먹으면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 이러면서 자꾸 퍼지면, 또 나 붙잡아다가 난리 칠지 누가 아나.

“몸이 아파서 일 못 나가면 그 길로 바로 해고야”

그 후로는 몸이 아프잖아. 원래 광산에서는 3 공수 반, 한 달에 삼일하고 반 공수를 빠지면 해고가 돼요. 근데 내가 선산부라서 일을 세게 하니깐 몸이 아프잖아. 곡괭이질이 많이 한 날은 어깨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걸음도 잘 못 걷고. 그래 아파서 일 못 나가고, 일 나갔다가 집에 오면 드러눕고 이러다 보니, 한 달에 세 개 빠지는 건 쉽잖아요. 그럼 바로 해고를 시키는 거래요. 오늘 여기서 일하다가도 “야 니 뭐 잘못했으니까 나가” 이러면 그 길로 해고래요. 그러면 할 말도 없어요. 내가 이 사건 때문에 맞아가지고 아파서 일을 못 나가는데도 회사는 그걸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노동위원회 찾아가서 부당 노동행위라고 말한 거야. 내가 대의원했고 그때 끌려가서 맞고 한 것도 얘기했지 싶어요. 그것 때문에 몸이 아파서 못 나간 건데 해고를 시켰다고 말하니 노동위원회에서 복직 시켜주라고 했어.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딴 데 가서 일자리 못 잡아요. 딴 데 가면 전부 안 받아줘요. 서로서로 다 아니까. 근데도 아파서 못 나가는 일이 많으니 다시 해고되고, 그때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내가 예전에 봤던 노동법 그거 없었으면 노동위원회 찾아가서 말하지도 못했지. 진짜 나 같이 (해고됐다고 따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참 그놈들 너무 했어.

남의 빚 내 가지고 트럭 한 대 사서 떠돌이 장사했지. 장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나는 광원 생활만 계속했는데. 뭐 빚을 갚아야 어디로 가든지 하지. 장사를 할 때도 몸이 말 안 듣는데 어떡해. 다리도 못 쓰고 그러니까 자연휴양림 여기라도 들어가서 있으라고 누가 말해주더라고. 1996 년도였는데, 한 달에 얼마 주느냐고 물어보니 70 만 원 준다고 해요. 돈보다도 편하게 일을 해야지. 사람 몸이 죽겠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있죠. 장사 땡기면 밥을 제때 못 먹는데 여기선 밥 제때 먹지, 걸으면서 큰 힘 안 들이고 운동하지 이러니까 여태까지 마 살고 있어요. 딴짓했으면 벌써 죽었죠. 벌써 죽었어.

“울고 땀기지 마라. 아버지 간첩이 아니니 학교 당당하게 땀겨라”

사북 이야기하는 거 올 4 월에 큰 딸내미가 유튜브로 본 모양이래요. 큰 딸내미는 그때 당한 일을 알거든요. 내 나오고 한 열흘 됐을 거요. 그때 사람들이 입에서 별별 얘기가 다 나왔겠쬬. 그러니 애들이 그거 듣고 땀 얘기고 그랬을 거라. 그래서 막 우니까 엄마가 학교로 데리러 가고 그랬어. 아빠 방에 있다고 한 것도 가고 자기가 다 기억하니까. (웃음) 사실 자기는 더 일찍 알았는데 아빠가 고통을 겪고 했으니까 말하지 않았대요. 근데 사북에 대해 더 많이 떠들고 하니까 아빠 이런 거 한다더라 하면서 얘기를 해. 딸내미는 학교 친구들이 그러는 게 자기도 제일 괴로웠다 하더라고. 맨고 또래들이 놀림 삼아 “니 아버지는 간첩이야, 간첩이야” 이러는데 간첩이 아닌데 간첩이라고 하니까 집에 울면서 온 거야. 저 엄마는 학교에 데리러 가고 그랬지. 나는 “막 울고 그리 땀기지 마라, 아버지 간첩이 아니면 되잖느냐. 학교 당당하게 땀겨라” 이랬어. 땀이라고 얘기해. 그 쯤만한 거한테. 그때 아(이)들이 왜 그랬는지 몰라.

딸내미한테는 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 못 했지. 잡혀갔다 왔다고만 하고. 고문 같은 거는, 아이고 그런 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월 상동에 사는 부모도 정선 가가지고 그렇게 고문당한 거 하나도 몰라요. 어머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고향 왔다 가면 누군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찾아오고, 마을 이장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땀 하러 여기 왔느냐고 묻고 그래요. 그 순경 같은 사람들은 내가 어디 갔다 왔니, 누구를 만났니 이런 걸 묻더라고. 이장이 말하는데 아이고 그 사람이 땀 죄를 지어가지고 여기 오기만 하면 자기한테 연락이 온다는 거라. 순경한테 연락이 온대요. 내가 거 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너 땀 죄를 짓고 땀기노” 이라는 거라. 죄지은 거 없습니다, 땀 별일 아니라고 했어. 아이 힘들지. 그래서 자주 못 갔어요. 경찰들 자주 찾아오고 이러는데 자주 가면 신경 쓰이잖아요, 부모님은. 세상 떠날 때까지 몰랐어요. 아버지는 한 20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한 7, 8 년 되고.

그때 사북에서는 이 사건으로 고문받은 걸 땀라 했냐면, 간첩 잡으려고 했다는 거라. 사실은 간첩 잡기 위해서 전부 고문을 했다 그래. 어느 놈이 간첩인지 모르니까 그래 고문을 했다 그러더라고. 아이 나야 내보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억울하고 어찌고 할 것도 없지만 좋은 얘기는 아니잖애. 사실 간첩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간첩도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내 있는 마을은 다 같이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사이는 좋았어. 딱 하나 경찰인지 땀지, 워커발로 짓밟으면서 말했던 그 000 이가 옆집에 살아. 통근버스 운전수였거든. 그 사람만 보면 꽤 씹하지. 꽤 씹하지만 어떡합니까. 화가 나땀 땀 땀 할 수 있나, 땀. 맨 통근버스 운전하고 땀기는데 내가 땀 말해 봐야 회사 편인데. 내가 말해도 땀가 되나? 얘기해봤자 나한테 해 밖에 안 돌아오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이 당했어. 000 이가 땀 얘기를 했길

래 그랬나 싶었지. 계속 신경 쓰였어. 그 사람이 보기만 하면 속으로 저놈의 나쁜. (웃음) 그러고도 1년 넘게 옆집에 살았을걸. 근데 당뇨 걸려서 오래 살지 못했어. 죽은 지 몇십 년 됐어. 일찍 죽었어.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도 잡혀갈 일은 없잖아요”

아니 난 요번에 사복 가서 놀랐어요. 내가 이원갑 씨한테 그랬지. 참 고생 많이 했다고. 여러 분들이 도와주셨겠지만 이원갑 씨 아니면 못할 뻔했잖아요, 사실은. 사복 행사를 그렇게 크게 하는 걸 처음 봤는데 기분이 좋죠, 뭐. (웃음) 저는 살라고 참말로 이를 아주 악물었던 사람이에요. 살라고만 참. 한 현장에서 세 번을 해고당해 봐. 아주 기가 맥힌 일이지.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딴나. 그래도 나는 참말로 내 인생을 살면서 남한테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부끄럼 한 점 없이 살았는데 사실 이 사복항쟁이 사람을 더 죽였어요. 사람을 더 죽여 버린 거야. 그러나 그걸 이겨내가지고 지금은 참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해요, 애들도 잘하지.

지금은 이런 얘기 한다고 옛날처럼 걱정되고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잡혀갈 일은 없잖아요. 잡혀갈 일은 없잖아 지금은. 계엄에서 잡아갔듯이 그렇게 잡혀가서 고문받을 일은 없잖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 솔직히 옛날 같으면 지금 이래 얘기 못 할 거야 아마. 세월이 참,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닙니까. 지금. 이래 얘기하고 나니 지금 후련합니다. 아주 후련해요.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길 다 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것도 없습니다. 예.

[칼럼] 산업의 전환과 ‘느린 폭력’ 1980년 사복항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가

김세림 역사문제연구소 |

동력은 곧 권력을 갖는다. 석탄을 태워 움직이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화석연료가 제공하는 폭발적 에너지 공급량에 공장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티머시 미첼은 탄소민주주의(생각비행, 2017)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과 민주주의의 관련성을 탁월하게 짚어낸다. 그에 따르면 화석연료, 즉 석탄을 대규모로 사용하게 되면서 탄광 인근에 산업화 지역이 형성되고 생산지와 도시는 서로 철도로 연결된다. 이렇게 구성된 ‘철도 네트워크’에 연관된 수많은 노동자들은 석탄 공급의 속도와 양을 조율하는 힘을 가짐으로써 정치적 주체로 변모하고, 그중에서도 광부는 중심에 있었다. 파업으로 에너지의 흐름과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힘, 티머시는 그 힘이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주요 에너지원이 석유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러한 네트워크는 힘을 잃게 된다. 석탄을 채굴하고 운송하는 과정에 얽혀 힘을 발휘하는 노동자들이 ‘송유관’으로 대체되어 버린 것이다. 송유관이라는 ‘이동성’은 노동자들의 힘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적 유전 개발의 붐을 일으키고, 유전 개발은 석유 기업과 정부의 ‘제국적 이익’에 맞물려 광범위한 통제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검은 땅 막장 탄부들, 박병문 작가

석유가 곧 권력이 되고 전쟁무기로 전화되던 1970년대, 한국에서도 유전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76년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전국이 열광했던 에피소드도 있지 않은가. 석유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한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역시나 석탄이었다.

울산정유공장 가동 후 중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 주유종탄을 지향하던 박정희 정권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주탄종유 정책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주요 에너지원은 석탄에서 석유로 이미 전환되었고, 도시가스 개발 역시 시도되고 있었다. 반면 석탄 매장량은 고갈되고 있었기에 석탄에서 석유로의 전환을 막을 수는 없었다. 석탄이 땅속의 다이아몬드라면, 석유는 흘러넘치는 다이아몬드였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탄광노조의 강력한 반발에도 결국 석탄산업의 축소에 성공했다. 1974년 25만 명이었던 영국의 광부들은 20여년간 4천여 명의 수준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기 전미국광산노동조합

(UMW)의 대규모 파업이 있었지만 석유로의 전환을 막을 수는 없었고, 호주의 주요 석탄지역인 울런공 역시 1980년대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1980년대 탄광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사양화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 흐름이었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1986년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이 시작되며 탄광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2004년, 한국의 최대 민영탄광인 동원탄좌의 폐광을 마지막으로 강원도에는 석공 산하의 두 개 광업소만이 남았다. 경제성장기 ‘산업전사’로 호명되며 생산성의 향상을 강요받았던 광부들은 그렇게 일자리를 잃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호황기를 겪은 탄광촌은 산업의 흥망성쇠에 따른 ‘느린 폭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사라졌다.



©peter arkell

‘느린 폭력’이라는 개념은 롭 닉슨이 주창한 것으로(느린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 에코리브로, 2020), “일반적으로 전혀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는, 오랜 시간에 걸쳐 벌어지는 폭력”을 의미한다. 이런 폭력은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당장은 고통받지 않는다. 폭력의 구조에서 약한 고리에 있는 최약체에게만 서서히, 켜켜이 쌓여갈 뿐이다. 롭 닉슨이 지적하는 것처럼 ‘버림받는 가난한 공동체’들이 당하는 느린 폭력은 조용히 묻힌다. 폭력은 “피를 흘려야 주목받”기 때문이다. 1980년 사북항쟁은 이런 느린 폭력이 진행되는 사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주목받았던 사건이었다.

앞서 티머시 미첼이 말한 석탄과 민주주의의 관련성을 다시 떠올려보자. 1980년 사북항쟁이 발발한 후, 전두환 정권은 빠른 수습과 정부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목욕탕과 복지회관 등 가시적인 복지를 제공했다. 물론 그러한 가시적 복지 뒤에는 사북항쟁 참여자들에 대한 고문이라는 직접적 폭력 역시 존재했다. 그럼에도 사북항쟁이 발발한 후 전두환 정권이 ‘복지’를 약속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티머시가 말한 것처럼 광부가 갖는 민주주의적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와 독재정권의 억압에도 광산지역이 개발되도록 압박했던 사북항쟁의 힘은 석유로의 전환이라는 ‘느린 폭력’에 대한 대항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리라. 또한 사북항쟁의 동력을 계승한 1995년의 ‘3.3 투쟁’은 탄광 지역의 황폐화에 맞서 폐특법(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이끌어 냈다. 첩첩이 산맥으로 둘러싸인 강원도의 작은 지역에서 어떻게 이러한 힘이 나오는 것일까.

사북이라는 지역의 시작과 함께한 탄광촌이 갖는 공동체적 성격, 연대성을 다시금 살펴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 세계는 석유에서 이제 전기로, AI 를 활용한 초연결·초지능의 시대로 내달리고 있다. 가솔린을 대체할 전기차는 이미 상용화되었고 자율주행시스템 역시 곧 완성될 테다. 손 하나 꿈쩍이지 않고 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이미 도래했다. 이러한 전환 속에 우리는 ‘느린 폭력’의 징후를 계속 감지하면서도 이것이 폭력이라 느끼지 못한다. 키오스크 앞에서 주저하는 노인, AI 와 AR 의 기술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지만 여전히 집 문 바깥으로는 나가기 어려운 장애인. 완전 자율주행이 도래하는 때, 그 필요를 잃게 될 화물 운송 인력들.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될 때 탄광 노동자가 일 자리를 잃었다면 4 차산업혁명 앞에서는 더 광범위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와 필요를 잃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느린 폭력’은 이미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1980 년 사북항쟁의 동력이 이 거대한 흐름 앞에 선 ‘가난한 공동체’인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검은 땅 막장 탄부들, 박병문 작가

김세림 |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 사북팀에 소속되어 2017 년부터 사북항쟁 참여자들의 구술증언 수집 및 탄광 지역 자료수집을 함께 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사북사건 이후의 사북: ‘복지’라는 외피를 쓴 일상적 감시」(역사문제연구 42, 2019)가 있다.

[칼럼] 쉬운 설명의 함정-복잡한 세상을 복잡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



이한솔 후원회원, 생명과학 박사 |

어느 과학자에게나 주어지는 흔한 기회는 아니지만, 종종 ‘업계 밖에서’ 즉 과학전문매체가 아닌 대중매체에 자신의 연구성과나 전문분야의 지식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가 과학자들에게 올 때가 있다. 많은 선배 과학자들에게 들은바 이때 가장 난감하면서도 꽤 흔히 듣는 첫 질문은 대체로 이렇다.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무조건 쉽게 설명해주세요.”

‘과학자’라고 하면 흔히 실험실에 틀어박혀 연구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은 과학자들은 탐구활동 이상으로 늘 무언가를 설명하는 데에 골몰하며 살아간다. 작게는 실험실 동료들과의 대화나 램미팅부터, 국내학회, 국제학술대회 등에서 끊임없이 연구 과정과 결과를 공유해야 하고, 그 결과를 일목요연한 논문으로 정리해내야 하며, 발표심사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와 연구성과를 심사위원들에게 납득시키고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 늘 머리를 싸매며 궁리하고 준비해야만 한다. 학위과정을 지도하는 연구자들의 경우 강의준비는 물론이고, 관심 있어 하는 학생에게 자기 연구의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 보여주어 지도학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준비도 늘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직업과학자로 먹고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업계 내에서’ 만큼은 설명의 달인이 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무조건 알기 쉽게 설명해달라는 ‘업계 밖에서’ 마주하는 이런 질문 앞에서는 설명의 달인들도 곤혹에 빠진다.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하나. 간단하게 말하자니 빠지는 내용이 많아 설명이 안 되고, 자세히 깊게 들어가자니 꺼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다. 따지고 보면 모든 전문분야가 다 그럴겠지만 한 가지 사실을 설명하려다보면 그에 앞서 숙지해야 할 지식이 알감자 줄기처럼 줄줄이 떨어져 나온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 중에서 핵심만 뽑아내 초등학생도 아이들을 만한 수준으로 쉽게 풀어 내놓는 것은 실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딱히 과학자들만 겪는 곤란은 아니다. 과학뿐 아니라 어떤 분야든 인류에게 쌓인 지식은 이미 복잡다양하며, 상세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어렵고 복잡한 정보를 쉽게 풀어 이해시키는 것은 실로 귀한 능력이다. 그런 점에서 개인방송채널이나 SNS 등을 통해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쉬운 설명 콘텐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실로 축복이다. 바야흐로 1인 콘텐츠의 시대가 도래한 세상에서 차고 넘치는, 설명의 달인들이 선보이는 쉽고 재미난 지식 콘텐츠를 보고 있노라면 나의 전문영역을 쉽게 전달해내지 못했음을 체감하며 상대적으로 빈곤한 자신의 책무이행 능력에 대해 자책감에 빠지는 전문가들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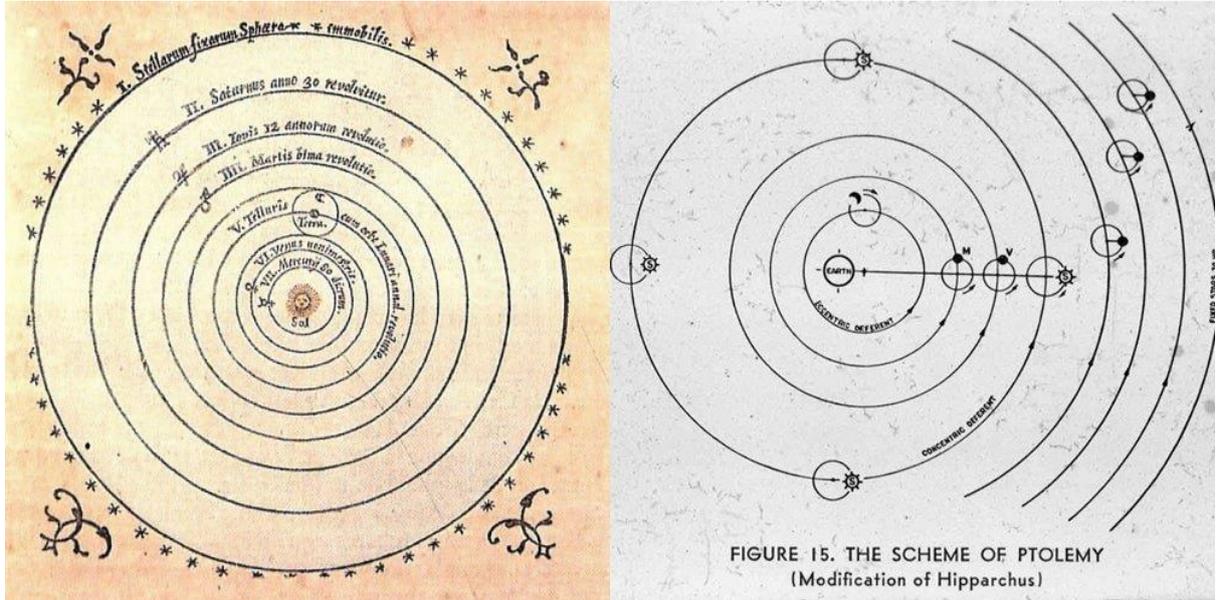
그러나 애석하게도 쉬운 콘텐츠들은 포장지뿐 아니라 내용물까지 쉬운 경우들이 적지 않고 그렇게 얻은 지식들은 얕은 깊이로 인해, 스스로 이해했다는 만족감을 주는 데까지만 그 역할을 다한 뒤 독자나 시청자의 머릿속에서 이내 휘발되어버리곤 한다. 더 나아가 포장지와 아예 다른 정보, 심지어는 사용자를 잘못된 방향으로 현혹하는 틀린 이야기들을 그럴싸하게 담고 있는 위험한 콘텐츠들도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분별없이 섞여 있다.

그런 사례들을 일상 중에 수없이 접하며, 우리가 진실을 찾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쉬운 설명’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 좇아야 할 덕목일까 하는 의심이 든다. 간단명료함으로 해체되기 전까지는 복잡다단함이 가지는 가치란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에게 쉬운 이해를 원하고 강요하는 걸까.

단순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비교적 널리 알려진 논리학 용어 중에 “오컴의 면도날(Occam’s razor)”이라 불리는 개념이 있다. 14세기 영국의 철학자 오컴의 신학논리에서 유래한 이 개념은, 여러 가설이 난립할 때 가장 적은 가정을 필요로 하는 단순한 논리가 진실일 가능성이 높기에, 불필요한 비논리적 가정들은 사유의 면도날로 잘라내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잘못된 논리일수록 그 논리를 변명하기 위한 수많은 예외와 단서조항이 붙을 수밖에 없다. 한 예로, 코페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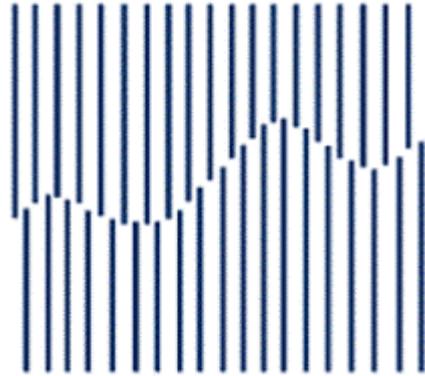
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교리로 굳게 믿던 막강한 교회권력의 탄압을 받았지만 결국 지동설이 과학적 정설로 받아들여진 것은, 새로이 관측되는 천체의 움직임을 천동설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규칙이 지동설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복잡해져야 했기 때문이었다. 오컴의 면도날은 이처럼, 논리적으로 단순한 명제가 진실일 확률이 높다는 개념으로서 “단순성의 원칙” 혹은 “논리절약의 원칙” 등으로도 불린다.



©abyss.uoregon.edu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 입각한 천체들의 궤도. 새로이 관측된 천문학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복잡한 원궤도들이 점차 추가되었고, 결국 폐기되고 만다. 굳이 이런 용어를 접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생각회로에는 이미 그런 사고방식이 내재되어 있다. 어려운 부연설명과 예외사항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복잡한 문장보다는 간결하고 명쾌해서 한 번에 이해가 가는 논리에 본능적으로 마음이 끌린다.

실제로 우리의 뇌는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즉시 재구성해 받아들인다.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어렵게 뒤섞인 정보들 사이에서 사전에 입력되어 있는 친숙한 형태의 정보들을 빠르게 찾아내어 선택적으로 취한다. 이러한 선택적인 정보습득은 생존과 직결된, 수백 만 년 동안 진화되어온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한 예로, 우리의 눈동자를 통과한 빛은 공평하게 망막에 맺히지만, 우리 신경회로는 그중에서 사물의 경계선을 더 집중하여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심지어는 실제로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경계가 주관적 윤곽선(subjective contour)을 스스로 만들어내어 인식하기도 한다. 윤곽선을 통해 대강의 형태를 파악하고 그 사물의 정체를 빠르게 인지하는 것이 생존에 중요하기에 당연한 현상이다.



©oocities.org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삼각형과 물결모양의 곡선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복잡한 시각적 정보 속에서 윤곽선을 인지하는 메커니즘이 우리 시각체계에 특별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청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데, 널리 알려진 예로 칵테일파티 효과(Cocktail party effect)로 불리는 현상이 있다. 아무리 칵테일파티에서 시끄러운 대화가 난잡하게 오가는 중에도, 관심도 없던 다른 테이블의 대화 속 어디선가 자기의 이름이나 자신의 관심사가 들리면 그쪽으로 귀를 쫓긋하게 된다. 이는 그저 우리의 기분 탓인 게 아니라, 우리의 뇌가 미리 저장된 감각기억(sensory memory)을 기반으로, 뒤섞여 들려오는 복잡한 대화들 속에서 재빨리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필요한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지각(selective perception)하는 신경학적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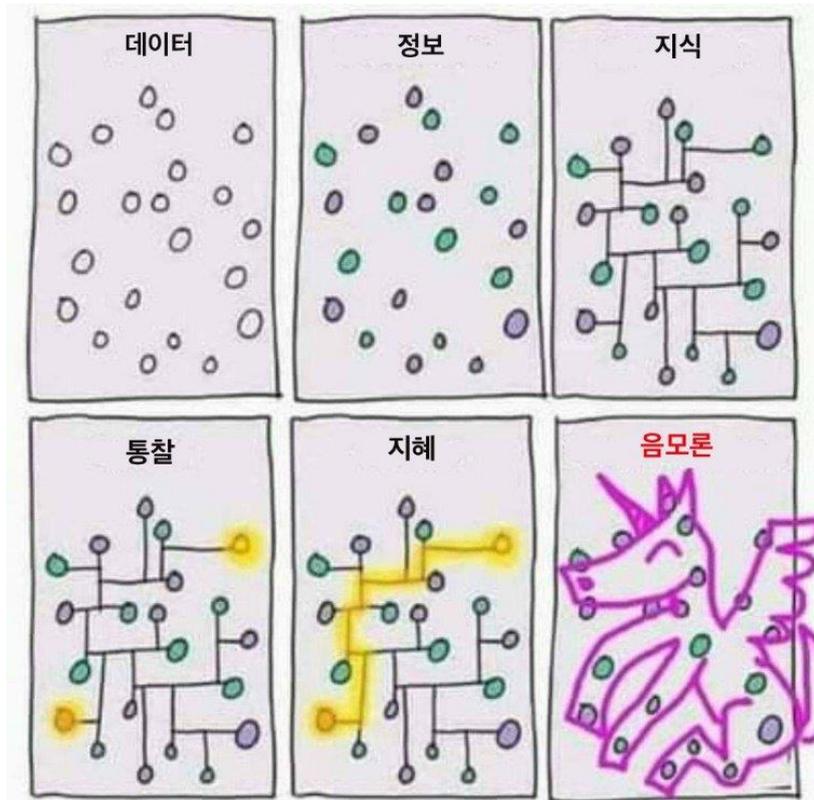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빠르게 속아내고 필요한 것만 취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매우 필수적인 전략이다. 또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게 이해가 가장 잘 되는 합리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사회적인 생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게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늘 그렇듯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때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쳐서 커다란 위험을 야기하기도 한다.

단순함을 추구하는 본성의 함정

오컴의 면도날과 상반된 개념으로 “히캄의 격언(Hickam’s dictum)”이라는 것이 있다. 20세기 중반 미국의 의사 존 히캄이 했다고 알려진 일종의 조언으로, “환자는 그 증상에 해당되는 모든 질병을 가질 수 있다”는,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다. 목이 아픈 환자가 가진 질병은 단순한 감기일 수도, 인후염일 수도,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혹은 신경학적 문제나 종양과 같은 중병일 수도 있다. 더 간단하게 설명된다고 해서 감기약만 처방했다가 환자의 심각한 질병을 놓칠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기우로 끝난다 해도, 의사는 환자의 병증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진단에 임해야 한다.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접근하는 것이 이런 경우에는 미덕이 된다.

만약 인간이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려 노력하지 않고,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하는 동물적 본성에만 의존해 왔다면 지구상에 이토록 번성할 수 없었다. 감각의 복잡성 뒤에 숨어,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사례는 생태계 내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은 복잡한 정보 중에서 생물학적인 인간이 감각하고 인지할 수 없는 영역을 기술과 도구로 끊임없이 극복해왔고, 그 영역을 극복해내지 못한 수많은 동물종들을 저만치 추월하여 전지구적인 문명을 이룩했다.

더욱이 오컴의 면도날과 같은 우리의 논리적인 본성, 그리고 단순하고 쉬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우리의 생물학적 본성은, 우리를 진실과 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한다. 면도날로 잘라낼 대상은 논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가정들이지, 아직 논리적 의미를 찾지 못한 데이터가 아님에도, 우리는 그럴듯한 명제에 확신이 생기면 그 그림을 망치는 모든 가설에 거침없이 면도날을 들이대곤 한다. 그리고 이런 지점에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쉽게 끼어든다.



©9gag.com

지혜를 얻는 과정은 복잡하고 그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다. 음모론의 그림은 예쁘고 선명하지만, 단지 그뿐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예로 엔리멍(Yan Li-Meng) 박사의 이슈가 있다. 홍콩대 연구원이었던 엔리멍 박사는, 코로나 19가 퍼지던 초창기부터 SARS-CoV-2 바이러스의 우한 기원설을 소리 높여 외쳐왔다. 코로나 19가 중국에서 개발하던 생물학 무기에서 유래했다는 근거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던 그가 미국으로 도피하고 중국 공안이 그의 집을 수색했다는

소식은, 코로나 19 우한 기원설에 더 선명한 색깔을 칠해주었다. 그러다 9월, 엔리멍 박사가 바이러스에 인위적 조작이 개입된 과학적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언론은 떠들썩하게 이 소식을 속보로 앞다퉈 전해왔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과 달리 엔리멍 박사의 주장에 대한 학계의 반응은 아주 냉랭했다. 바이러스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은 이미 바이러스 확산 초창기에 끝났고, 진화적으로 인접한 여러 코로나 바이러스들과의 비교분석 결과로 수많은 자연적 변이들이 발견되었다. 엔리멍 박사의 주장처럼 인위적인 조작으로 판단할 만한 지점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동료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엔리멍 박사의 보고서가 우여곡절 끝에 공개되었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살펴본 동료 과학자들에게 그의 보고서는 역시나 하는 비웃음을 샀다. 수많은 과학자가 기존의 SARS 바이러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토록 전파력이 큰 바이러스가 되었는지 골몰하는 동안, 엔리멍 박사는 바이러스 염기서열이라는 복잡한 정보 중에서 자신의 가설에 맞는 정보만 골라 취해서 코로나 19 우한 기원설이라는 쉽고 예쁜 그림을 그린 셈이다.

학계에서는 비웃음을 샀을지언정, 한번 대중에게 각인된 음모론의 예쁜 그림을 지워내는 일은 쉽지 않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힘 써야 할 국내의 많은 언론들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보다 오히려 음모론을 확산하는데에 앞장섰던 사실은, 안타깝고 부끄러움을 넘어 애석하고 통탄할 일이다.

복잡함과 단순함 사이 그 어딘가에서 시급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이렇듯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신중하게 다각도로 접근하여 분석함이 옳겠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은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지켜야 할 가치들이 서로 충돌할 때 더욱 그렇다.

시간이 어느새 연말에 다다르고 코로나 19에 더하여 유행성 독감으로 인한 이중고가 예정된 이 시점에, 독감백신에 대한 때아닌 공포가 피어오르고 있다. 코로나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이 확산될 경우 생겨날 혼란이 너무도 크기에 독감백신 접종에 대한 중요성이 일찍부터 강조되어 왔으나, 백신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예년보다 많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오히려 독감백신 접종을 피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이 당연하지만,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했다는 시간적 일치 만으로 사망원인을 백신 부작용으로 파악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접근 가능한 정보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로 보인다. 상관이 있어 보이는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내는 일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일은 더욱 어렵고 힘들다. 백신이 원인이 된 사망인 것인지, 아니면 사망한 사람이 사망 전 백신을 접종한 상황일 뿐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미지의 영역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는 꺼트리기 힘들기에, 복잡성을 충분히 풀어내기 전에 불안이 널리 확산함으로써 생겨나는 피해는 아주 크다. 백신접종 7일 이내 사망자 중 70대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80%가 넘고, 현재 까지 보고된 사망 사례들이 학계에 이미 보고돼 있는 백신의 부작용과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백신 부작용이 사망원인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거기에 더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역학조사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간의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고위험군에 예방접종을 권한다는 권고를 내놓고 있음에도, 한번 형성된 불안감은 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독감 유행기를 향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그저 우리를 대신해 이 상황을 종합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뿐이다. 시간적 제약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낼 책임자들이 지닌 실력은, 결국 그동안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하게 보지 않고 충분히 어렵게 인식했던 역사가 우리 시스템에 얼마나 축적되었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집단의 결정에 얼마나 신뢰를 보낼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은, 마찬가지로 그 개인이 그동안 복잡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느냐에 달려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고 긍정적인 사실은, 지난 시간동안 우리가 코로나 19 라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면서 쌓아온 지혜가, 독감 바이러스가 얽혀 조금 더 어려워질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하리란 점이다. 예를 들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모임을 자제하는 방역수칙은, 코로나 19 와 독감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해법이니까.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학개념을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려는 노력, 즉 과학이 대중에게 더 재미있고 쉽게 다가가려는 “과학 대중화”의 움직임이 과학계 내에서 오랜 기간 있어왔다. 또한 그런 소중한 노력이 수많은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과학자의 꿈을 심어주는 데에 실로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그렇게 쉽고 재미있는 과학에 익숙해진 대중마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영역에 다다르면 여지없이 쉽게 등을 돌리고, 더 나아가 흥미에만 초점을 맞춘 틀린 정보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유사과학에 이끌리는 것은 과학 대중화로도 어쩔 수 없는 지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과학의 대중화”가 아닌 “대중의 과학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즉 어려운 진실을 언젠가는 벗겨질 쉬워 보이는 포장지 속에 감출 게 아니

라, 어렵고 복잡한 과학지식이 가진 가치와 필요성을 납득시키고, 그 가치에 관심을 가진 대중이 과학적 지식을 정확히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대중의 과학화”를 위해 아무리 힘쓴다 해도, 쉽게 풀어진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대다수가 대중으로서 존재하는 사회는, 언제든 유사과학이 가리키는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 나갈 위험에서 딱히 자유롭지 않다.

한편 과학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복잡성의 장벽이 역설적으로 과학이 그나마 대중적인 신뢰를 받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만든다는 점을, 과학자들은 어쩌면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도 모른다.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세상 소식들을 우리가 논리적 생물학적 본성을 통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개인의 비위에 관한 소식만큼은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 심지어 얼굴도 안 알려진 일반인에 대한 것마저도 논란만 됐다 하면 너도나도 한마디씩 던져대며 순식간에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는 데에는, 딱히 면밀하게 알아볼 필요도 없이 개인의 도덕적 감각만으로도 잘잘못을 가릴 수 있다고 여기는 우리의 단순화 본성이 틀림없이 작용한다. 총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감내해야 할 복잡성에는 불편한 피로를 느끼며, 오히려 선별된 몇 가지 사실을 재료로 예쁘게 그려진 음모론에 편안한 만족을 느끼는 태도도 물론 마찬가지다. 어려운 정책문제의 복잡한 면면은 내 영역 밖으로 여기며 전문가의 몫으로 넘겨 두면서도, 그 내용을 단순화한 기사 몇 줄만 읽고도 거침없이 정책책임자를 비난할 준비가 되어있는 우리의 익숙한 자세 또한 우리에게 내재된 본성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본성에 충실함으로써 개인이, 사회가, 우리 모두가 그동안 받아온 고통과 손해에 대해서, 이제라도 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쉬운 설명을 찾지 못해서 생기는 답답함보다, 어려운 문제를 간단하고 쉬운 것으로 오인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우리는 늘 상기해야 한다.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감각만으로 진실이라 여기거나,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틀림으로 치부하는 쉬운 확신이 모여서 진실의 배를 침몰시킨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진실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결코 간단하지 않음을 겸손하게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그 복잡한 문제를 면밀히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해법이 시작되리라는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급하지 않고 꾸준히 인내해야 할 테다. 이해하기 위해서, 또한 이해시키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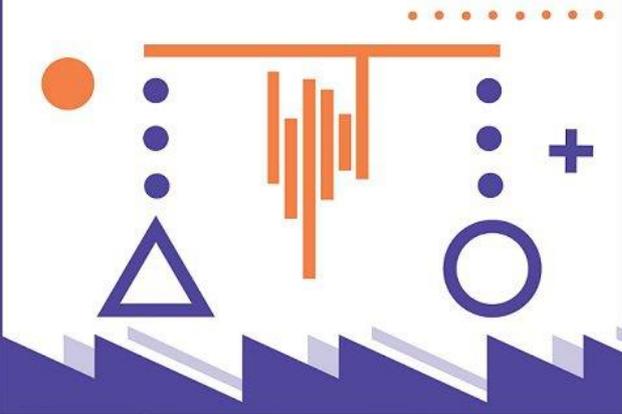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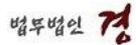
이한솔 | 후원회원, 생물학 박사. 들꽃과 새와 벌레에 이끌려 생물학을 시작했으나 돋보기를 너무 가까이 들이댄 나머지 전공분야가 단백질 분자구조

연구에 가 닿았다. 거위가 풀을 뜯는 풍경이 보이는 실험실에서 매일 대장균을 키우며 학위과정을 보냈다. 연구자로서의 호기심과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지니고 탐구를 계속하려 노력 중이다.

제 1 회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소송 제안서 공모 및 지원사업 안내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소송 제안서 공모 및 지원 사업


 재단법인 진실의 힘과 법무법인 경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제도적·구조적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뜻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p>사업명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소송 제안서 공모 및 지원 사업</p> <p>응모 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단위 응모 가능 <p>공모 내용</p> <p>아래 영역에서 선정한 주제와 관련해 은폐된 인권침해의 진실규명, 피해자의 구제 또는 제도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헌법소송,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또는 국제적 권리구제절차 제안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 ○ 정치·경제·사회 영역의 제도적·구조적 인권침해 ○ 기후위기 ○ 부정부패 <p>지원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제안자에게 연구활동비 지원 (1등 200만원 3명, 2등 150만원 5명 이내) ○ 선정된 제안자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와 변호사의 지도를 받아 제안서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2021년 상반기에 재단법인 진실의 힘과 법무법인 경은 별도로 진행할 공익소송 지원사업에서 제안서가 채택될 경우, 소송 수행과정에 참여할 기회 제공 ○ 전문가·활동가와 계속 교류할 수 있는 교육·지원 프로그램 제공 예정 	 <p>제안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법인 진실의 힘 홈페이지 www.truthfoundation.or.kr에 게시한 '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자기소개서, 공익소송 제안서, 개인정보사용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truth@truthfoundation.or.kr으로 이메일 송부 ○ 문의사항: truth@truthfoundation.or.kr 02-741-6260 <p>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제출 마감: 2020년 12월 30일 18:00 ○ 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자 발표: 2021년 1월 25일 개별 통보 ○ 교육 프로그램: 2021년 2월 15일 ~ 27일 예정 <p style="text-align: center;">  진실의 힘 </p> <p style="text-align: right;">  법무법인 경 </p>
--	--

재단법인 진실의 힘과 법무법인 경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제도적·구조적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사회

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뜻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1. 사업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소송 제안서 공모 및 지원 사업

2. 응모 자격

-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단위 응모 가능

3. 공모 내용

아래 영역에서 선정한 주제와 관련해 은폐된 인권침해의 진실규명, 피해자의 구제 또는 제도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헌법소송,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또는 국제적 권리구제절차의 제안서

-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
- 정치·경제·사회 영역의 제도적·구조적 인권침해와 불평등
- 기후위기
- 부정부패

4. 지원 내용

- 우수 제안자에게 연구활동비[1 등 200 만원 3명, 2 등 150 만원 5명 이내] 지원
- 선정된 제안자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와 변호사, 활동가의 지도를 받아 제안서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2021년 상반기에 재단법인 진실의 힘과 법무법인 경이 별도로 진행할 공익소송 지원사업에서 제안서가 채택될 경우 소송 수행과정에 참여할 기회 제공
- 전문가·활동가와 계속 교류할 수 있는 교육·지원 프로그램 제공 예정

5. 제안방법

- 첨부한 <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자기소개서, 공익소송 제안서, 개인정보 사용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truth@truthfoundation.or.kr 로 이메일 송부

○ 궁금한 것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02-741-6260, 담당자 이사랑 인
권사업팀장)

6. 일정

- 제안서 제출 마감: 2020년 12월 30일 18:00
- 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자 발표: 2021년 1월 25일 개별 통보
- 교육 프로그램: 2021년 2월 15일 ~ 27일 예정

후원회원 소식

“진실의 힘의 '목적'을 지키되, 정확한
설명과 투명한 공개가 가능해야 합니다”
| 오현석 감사



2020년부터 진실의 힘 감사로 임명된 오현석 공인회계사를 소개합니다. 오현석 감사는 정책학을 기반으로 한 세무전문가로 공공과 민간, 영리와 비영리 분야에서 폭넓게 경험하고 활동했습니다.

올해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후원, 회계, 감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시민 사회 내부의 문제 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실의 힘은 올해 설립자 출연금과 후원금이 책임감 있게 제대로 쓰이고, 잘 관리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현석 감사는 어떤 부분에서 ‘원칙’을 세우고, 또 어떤 부분에서 자율성을 유지해야 하는지 든든하고 냉철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기로 비영리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시게 되었나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 소속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의 활동도 두루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로부터 전문자격사로 요구받는 역할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계기는 2009년 희망제작소 감사를 맡으면서 시작되었어요., 비영리 분야에 대해 본격적으로 접하게 됐어요. 개인의 전문적 경험과 지식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올해 시작한 공공경영연구소는 행정이라는 단어가 주는 수동적거나 다소 사무적인 뉘앙스를 벗고 공공의 영역도 핵심은 경영이라는 평소의 생각을 담아 이름을 지었어요. 경영이라고 하면 기업경영과 마찬가지로 경영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담고 있지요. 그 가운데 제가 회계사로서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재무분야인 거예요. 세입과 세출로 이루어진 예산회계는 물론, 재무회계는 정부를 이해하는 시작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회계를 어려워하다 보니 시민들이 정부를 쉽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회이든 자치단체의회이든 정부의 그 역할의 시작은 정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중에도 기초단체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이 부분에 제가 할 일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기초단체는 시민의 생활과 직접 맞닿은 공공의 최전선이기 때문이죠. 정부회계와 시민 감사의 두 분야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정부로부터의 확실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평가와 비판의 힘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비영리 단체의 감사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비영리 단체에 대한 큰 톨레랑스(관용)를 갖고 있습니다. 영리든, 비영리든 어디서나 문제는 발생합니다. 다만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때 공인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기준을 강조하고, 보수적인 유권해석을 두둔하여 일반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은 아닐테죠.

올해 정의기억연대 논란이 일어나면서 회계 전문가들을 향해 정치권과 언론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스스로의 역할을 정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지만,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해는 모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 정당성을 앞에 세워 엄격한 방식을 고수하기 보다는,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공신력을 활용하여 실질적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용을 키워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보를 읽는 사람들이 모두 전문가가 아니니, 불필요한 혼선이 없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진실의 힘은 매년 국세청에 재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재무 보고 기준과 방법이 비영리 분야에 적합하지 않고, 이에 대한 기관, 전문가의 의견도 다양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정부보고 및 시민을 위한 정보 공개에 대하여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해 송곳 검증도 중요하지만 단체의 관행과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민간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성숙한 시스템을 만들어 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국세청이 기업에 대한 과세체계를 갖추면서도 법과 제도가 하나씩 갖춰지고 국세실무도 꾸준히 발전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이뤄갈 수 있었던 거죠.

이에 비해 비영리 분야의 법, 제도의 수준뿐 만 아니라 정부의 이해도 그다지 높지 않아요. 비영리 법인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보다 너그럽게’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비영리단체는 영리 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발휘하여 활동합니다. 그런데 성과를 화폐가치로 구할 수 있는 영리법인처럼 획일적 잣대로 비영리 법인을 평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아요. 사회가 보다 너그럽게 중요한 사회주체를 바라보고, 전문가도 공신력을 활용하여 지원해야 할 거예요.

구체적인 예로 국세청의 비영리 재무 보고 기준을 들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매출을 올리고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기업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과세하는 일을 합니다. 반면 비영리단체는 영리기업과 달라 국세청이 요구하는 획일적 양식으로는 정보의 완전 또는 적절한 공개가 쉽지 않죠. 따라서 국세청도 이런 실무를 반영하여 최근 해마다 보고양식을 수정하면서 개선발전 시켜가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도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정부나 비영리 분야 모두가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공개된 정보를 통해 비영리단체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단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한 설명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사회적 아량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외면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맞느냐 틀리냐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어요.

올해 진실의 힘도 지난 회계, 재무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미비한 지점을 보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준에 억지로 짜맞추기보다는 각자가 가진 ‘전문성’을 믿어야 한다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논란 당시에 언급된 공익법인 공시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분명 필요한 정보입니다. 단체의 외부에서 단체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담고 있는 법에서 정한 수준인거죠. 문제의 본질은 재무정보라기보다, 단체에 투명하고 민주적인 리더십이 갖춰져 있느냐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단체의 재정에 대해 이해하고자 할 때 단체는 설명하고 보여주면 되는 거죠. 비영리는 결코 사적 영역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단체의 책임입니다. 단체의 역할은 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거잖아요. 따라서 단체의 활동 과정과 결과는 알려져야 해요. 과정과 결과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만약 불충분한 지점이 있다면 외부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설명해야 하는 것이죠.

진실의 힘의 사업은 장기적이고, 그 결과가 비가시적인 경우가 많아서, 앞서 말한 ‘복잡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의 성격이 큼니다. 진실의 힘의 활동은 어떻게 보시나요? 후원회원이 진실의 힘 활동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진실의 힘은 재단법인입니다. 저는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단체의 정관은 가급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거죠. 목적사업을 확장적으로 해석하면 단체의 활동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사회에 권한 범위가 모호해지면서 단체에 대한 감독 또는 통제가능성을 약화시키게 되니까요.

진실의 힘 정관 제 3 조 [사업] 이 법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치유와 재활 및 지원 사업
2. 인권침해의 진상규명 지원 사업
3.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치유와 재활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홍보, 출판, 학술 사업
4.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내 및 국제법과 제도의 이행과 개선
5. 아시아 지역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6. 한국의 민주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일반여행업

7. 그밖에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포함한 수익사업

재단법인 진실의 힘의 사업, 즉 후원금의 쓰임새를 평가할 때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정관 상의 목적과 집행조직의 활동을 긴밀하게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또한 진실의 힘은 외부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 가능해야 하며,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한 인간의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는 공간이라 좋아요" | 박정진 후원회원

언어와 말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아동들의 중재 및 재활을 하는 ‘언어 재활사’ 박정진 후원회원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눈은 동그랗고 주름이 있어’라는 객관적 묘사 대신에, 할머니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각을 느껴 ‘나의 할머니’를 그려낼 수 있는 장애 아동을 위한 교구와 동화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2020년 1월 후원회원이 된 그는 진실의 힘이 “한 인간의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손에 닿는 촉각과 온기로 아동들과 교감을 나누는 박정진 후원회원이 바라본 진실의 힘의 인간과 세계가 궁금해졌습니다.

진실의 힘 후원 계기가 무엇인가요.

시작은 지인 추천이었는데 지난해 송년 모임에 오고서는 진실의 힘에 대해 좀 더 생각하게 됐어요. 진실의 힘에는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 문제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문제나 사건을 겪은 것은 그 사람의 결정이나 잘못이 아니잖아요. 진실의 힘에는 그러한 개별적인 한 사람의 삶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라고 느껴졌어요.

‘개별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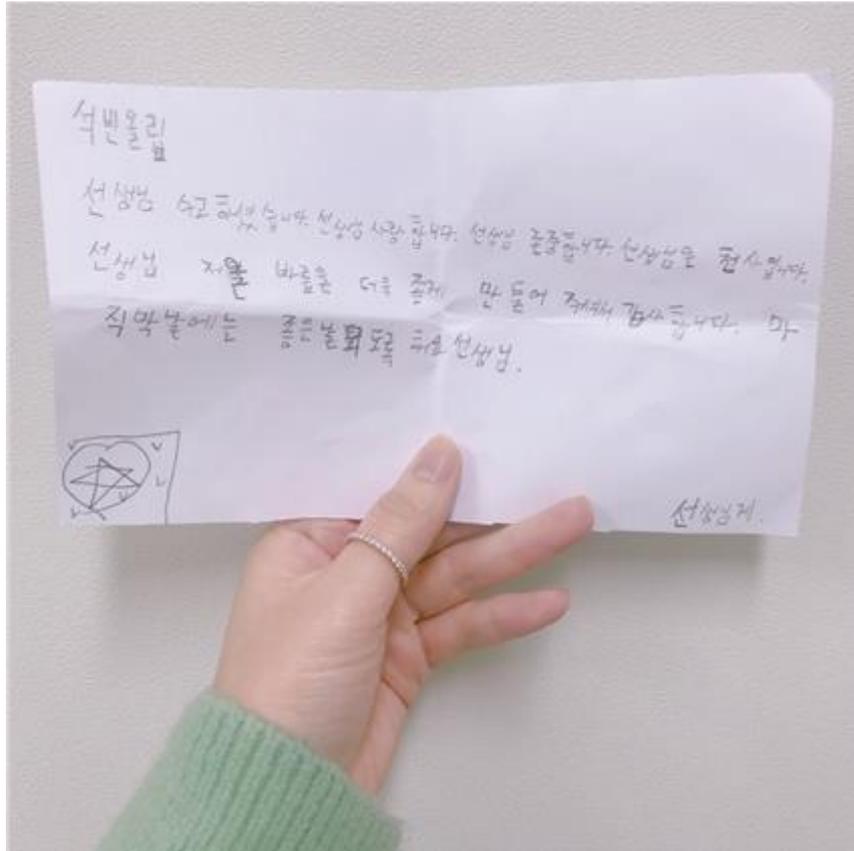
올봄 진실의 힘 사무실 이사를 도와주면서 조작간첩 피해자 선생님들의 사건에 대해 알게됐어요. 나와 가까운 이야기인 거예요. 마치 옆집 아저씨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요. 그분들이 받은 고문의 잔인성에 놀란 건 아니었어요. 제 현장에서 보고, 듣는 것도 많으니까요. 놀란 건 과정에서 모든 것이 완벽히 조작됐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도 교묘한 조작이 아니라, 없던 건물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자체를 완벽히 조작해서 한 사람의 세계를 무너뜨린 것이요. 어떤 권력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한 사람을 그냥 몽

개버렸다 싶었어요. 그런 사람과 진실의 힘이 만나, 한 인간의 무너진 세계를 재건한다고 생각해요.

‘사람’ ‘한 인간의 세계’에 집중하는 지점은 ‘언어 재활사’라는 본인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현 시국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대해 묻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데요. 언어 재활사로서 장애 아동 교육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문제가 있을까요.

사회적 경험을 하기 위한 제약이 많아지는 게 안타깝죠. 장애 아동들은 학교에 매일 등교하는 것과 같은 사회화를 일상적으로 교육해야 하는데, 언제든 집단감염이 터지면 학교에 못 가잖아요. 비장애 아동, 장애 아동 모두 급격한 환경 변화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장애 아동 특히 지적 장애 아동은 적응에 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특히 자폐아동들은 원하는 감각 욕구가 제각기 달라요. 어떤 아동은 마스크를 쓰는 것조차 어려워해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지 않으면 치료실을 못 가거나,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는 등의 일상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지만 자폐아동들은 그 행동 양식에 민첩하게 적응하기를 어렵죠. 그러니 마스크 쓰는 것, 상황에 따라 벗는 것, 챙기는 것, 땅에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 하나씩 쪼개어서 가르쳐야 해요. 요즘 코로나가 일상화되고 익숙해졌다고 말하지만, 장애 아동들은 그 일상을 살기 위해 수많은 단계를 나눠서 연습하고 배워야 해요.

다른 것보다도 비장애 아동들은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많잖아요. 학교를 못 가도 학원을 가거나 친구들과 놀거나 안 되면 홈스쿨링도 가능하죠. 그런데 장애 아동들은 자가 학습이 어려워서 보조자가 필수인 경우도 있어요. 저는 장애 아동들이 여가 활동을 즐길만한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성장에 있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에서 벗어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참 중요하거든요. 일상에서 쉼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요. 장애 아동들의 치료, 교육 영역은 발전하는 반면, 아이들이 더 재밌게 놀기 위한 콘텐츠는 한정적이에요. 예를 들어, 중증장애 아동들은 매일 누워서 생활하니 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누워서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노는 시간이 확실히 필요해요. 이 여가 생활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지원할 수 있을까가 제 고민이에요.



©박정진

2019년 긴 시간 함께 했던 아이로부터 받았던 편지.

아동들에게 어떤 놀이 콘텐츠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동화를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양한 감각이나 질감이 있는 언어를 경험하게 하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아이들과 교감하고 방식이 필요해요. 보통의 동화는 그림과 글로 구성돼 있고 내부의 상징을 통해 내용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장애 아동은 좀 더 감각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동화에서 종이 나오면 소리를 직접 들려주는 등, 내용에 맞는 적절한 사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요. 꼭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교감할 수 있어요. 엄마 꿈이 나오는 동화라면, 따뜻한 웃을 입고 꿈 흉내를 내면서 동화를 읽어주는 거죠.

‘장애 아동들은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상대가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이야기를 충분히, 자세히 들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방법을 개선해주면 장애 아동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또래 비장애 아동이 매 성장 시기마다 접하는 재밌는 이야기를 장애 아동들도 충분히 경험해야 해요. 물론 좀 더 상세하고 전략적인 접근은 필요하죠. 감각 확장 차원에서 어휘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거나, 문장을 좀 더 쉽고 단순하게 만드는 식으로요. 누워서 생활하는

중증장애 아동들이 신체적 어려움은 있지만, 비장애 아동이 좋아하고 즐기는 내용이라면 그 아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재밌어할 거예요.

어떤 동화를 만들고 싶으세요?

권선징악이 없는 동화요. 보통 전래동화에 나오는 ‘착하면 복 받고 나쁜면 벌 받는다’는 권선징악 구조가 불편해요. 권선징악 구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우선시해요. 그리고 복이나 벌을 주는 것도 전적으로 타인이 주는 행위예요. 반대로 아이들이 복을 받으려면 ‘~를 해야만’ 하죠. 저는 나라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서,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복을 받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아이들에게 채우지 않아도 될 족쇄라고 봐요.

오늘 인터뷰는 박정진 후원회원을 통해 진실의 힘에서 다루지 못하는 장애 아동의 기본권, 특히 교육권 문제를 후원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다소 진부하지만 후원회원으로서 진실의 힘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질문의 대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고군분투 하면서 우리 사회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진실의 힘은 그 사이에서 묻힐지도 모르는, 멈춰 있는, 멈추고 싶은 이야기를 톱니바퀴 사이 사이에 잘 끼워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실의 힘에서 나오는 글들이 참 좋아요. 어떤 한 사람의 세계나 인권이 짓밟히거나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보고, 듣고, 알아야 하잖아요. 앞으로의 활동도 그렇게 해주세요.

2020 년 10 월, 진실의 힘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ategory [재정](#)

schedule 2020 년 11 월 13 일

2020 년 10 월, 진실의 힘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MS 정기후원]

강남규 강문민서 강서정 강영숙 강옥숙 강용주 강은옥 강형철 고동민 고민경 고제량 공명찬 구미성 구종우 구혜임 권경주 권오형 권지윤 기정이 길래현 김경달 김경순 김경아 김경훈 김권호 김규태 김나연 김남섭 김동민 김미경 김민희 김병선 김상훈 김선정 김성숙 김성일 김순영 김승연 김애상

김영태 김용규 김원영 김유심 김윤정 김은영 김응수 김이슬 김인수 김잔디
 김정민 김정빈 김정우 김정은 김정인 김정현 김종규 김종선 김종익 김주영
 김지은 김지현 김진훈 김충례 김평호 김학주 김한수 김현무 김현정 김현주
 김혜성 김환균 김효정 김희경 김희영 나백주 노복미 노희빈 류혜정 모재연
 문덕수 문성연 문장렬 문현아 민원식 박경련 박경미 박계용 박노성 박미옥
 박미현 박보경 박선이 박성수 박소희 박수빈 박수연 박영란 박옥희 박용신
 박장락 박정남 박정진 박종수 박주홍 박중석 박지호 박철홍 박현진 박형주
 방진숙 배소영 배수경 배진환 배혜진 변주경 서경아 서미미 서아인 설정희
 손지은 손현주 손현철 손혜영 송소연 송재혁 송지완 신경구 신동규 신동기
 신동호 신상철 신소희 신윤희 신진숙 심은정 심정은 안경호 안명옥 안점옥
 양경희 양남훈 여연심 염은진 오지영 오현석 오현진 우한철 위정미 유승찬
 유재우 유창진 유현미 윤경희 윤성수 윤양희 윤혜정 이강택 이경화 이근행
 이기범 이미정 이민주 이병도 이보경 이상윤 이성엽 이승미 이영하 이영희

이 옥 이옥란 이용현 이원식 이은숙 이은애 이자영 이재범 이정미 이정식
 이지윤 이지은 이진 이창훈 이채훈 이한솔 이해림 이향미 이현주 이혜선
 이혜영 이효림 이희정 임도균 임인자 임현주 임혜영 장영아 장은교 장해량
 전현숙 정길동 정길화 정대하 정미란 정미연 정범진 정봉숙 정유진 정윤정
 정윤희 정재홍 정정희 정종호 정혜경 정희선 조동찬 조미진 조민기 조은희
 조일준 총 220 분

[계좌이체 정기후원]

채수미 강경희 조미영 박근홍 안금자 조진우 법무법인 지평 총 6 분

[특별후원금] 임민욱

[신규 후원회원님, 반갑습니다.] 김은미